

영어 예열 지문: 2017학년도 수능영어 33번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rief is unpleasant. Would one not then be better off without it altogether? Why accept it even when the loss is real? Perhaps we should say of it what Spinoza said of regret: that whoever feels it is “twice unhappy or twice helpless.” / Laurence Thomas has suggested that **the utility** of “**negative sentiments**” (emotions like **grief, guilt, resentment, and anger, which there is seemingly a reason to believe we might be better off without**) **①lies in their providing a kind of guarantee of authenticity for such dispositional sentiments as love and respect.** [No occurrent feelings of love and respect need to be present throughout the period in which it is true that one loves or respects. One might therefore sometimes suspect, in the absence of the positive occurrent feelings, that _____.] At such times, **negative emotions like grief offer** a kind of testimonial to the authenticity of love or respect. [3점]

* dispositional : 성향적인 ** testimonial : 증거

해당 지문에서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확장합니다
이 때, 슬픔은 불쾌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의 유용성은

- ① 사랑과 존경과 같은 특정 감정들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하며
- ② 사랑과 존경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때, ‘슬픔’과 ‘슬픔의 유용성’을 구분해야겠죠. 이 구분을 생각하면서 괄호 친 문장의 구분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래처럼 따로 정리했습니다.

[No occurrent feelings of love and respect need to be present throughout the period in which it is true that one loves or respects. One might therefore sometimes suspect, in the absence of the positive occurrent feelings, that _____.]

이 문장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존경을 느끼는 것’과 ‘사랑과 존경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개념 구분을 한 뒤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한다면:
‘사랑과 존경을 하는’ 동안에는 ‘사랑과 존경을 느낄’ 필요가 없다.
- 내용을 연장해서 빈칸문장을 이해한다면:
‘사랑과 존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_____을 의심한다.

해당 밑줄의 내용은 ‘one no longer loves(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푸는데 굳이 위에 정리한 개념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빈칸 문제는 괄호 친 문장을 보고 상식을 사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왜 위와 같은 분류가 필요한 것일까요?

영어 예열 지문: 2017학년도 수능영어 33번

그 이유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연애를 하다보면 서로 싸울 때가 있는데, 당사자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무관심이라는 상태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적으로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죠.

그래서 당사자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 그 감정의 빈 공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하는 불쾌함 때문에 사랑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하는 불쾌함에 집중하지 않고, 부정적 감정의 유용성을 구분하면서 부정적 감정이 사랑과 존중의 진실성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즉, 서로 사랑과 존중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존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윗글과 같은 글을 적은 것입니다.

꽤나 로맨틱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요.

지금까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해석을 읽고 선택지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해석

슬픔은 불유쾌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손해를 보는 것이 확실한데도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아마도 우리는 스피노자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한 말, 즉 누구든지 그것을 느끼는 자는 '두 배 불행하거나 두 배 무기력하다'는 말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Laurence Thomas는 '부정적인 감정'(없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어 보이는 감정들인 슬픔, 죄책감, 분개함, 분노와 같은 감정들)의 유용성이 그것들이 사랑과 존경심과 같은 그런 성향적인 감정에 대한 일종의 진실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존경의 감정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사실인 그 기간 동안 줄곧 존재할 필요는 없다(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때때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때에,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랑과 존경심의 진실성에 대한 일종의 증거를 제공한다.

선택지

- ① one no longer loves
- ② one is much happier
- ③ an emotional loss can never be real
- ④ respect for oneself can be guaranteed
- ⑤ negative sentiments do not hold any longer